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승중
한국기독교교육대학교 대우교수

국가와 사회의 흥망을 점친 것이 정치적 예언서이다. 이것이 역사 기록에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 말부터였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자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징조가 빈번히 나타났다. 한참 뒤인 후삼국시대에도 왕건과 궁예의 정쟁을 예언한 '고경감'(古鏡鑑)이 출현해, 왕건의 승리를 예고했다.

유학자 최치원도 고려가 신라를 흡수하리라고 점쳤다. 한다. 풍수도참설의 선구자인 도선(道詵) 대사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왕건의 나라 고려가 탄탄대로를 걸으리라고 예측했다.

고려 왕조에서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예언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도선의 예

예언문화에서 민심을 읽다

언을 빙자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의 지기(地氣)가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고려왕실로서 더욱 듣기 민망했던 것은 이씨가 남경에 도읍한다는 예언이었다.

왕실에서는 남경에 오얏나무를 심어두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몽땅 베어버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14세기 말에는 이성계가 일어나서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왕조 교체와 천도(遷都)를 바라는 민심이, 역사의 방향을 틀고 말았다.

조선 중기 이후 사회와 당쟁이 격화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내외의 환(內憂外患)이 거듭되자 예언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하여 18~19세기는 사실상 '예언의 전성시대'가 된다. 특히 영조와 정조 때는 서북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鄭鑑錄)이 전국에 유행했다. 예언서를 구실로 '정감록 역모 사건'까지 일어났다. '정감록 열풍'은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실시되자 다시 거세게 일었다.

예언서에는 민중이 느끼는 '현재의 고통'과 함께 '미래 해결책'이 담겨 있다. 가령 '정감록'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외침의 위협과 국내정치 부패와 문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

술되어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진인(真人), 즉 구세의 영웅이 나타나 안정과 평화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예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통치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언 때문에 민심이 요동치고, 그것이 결국 반(反) 왕조 활동으로 비화될까 봐 전전긍긍하였다. 하지만 민중은 정치적 예언에 기대를 걸었다. 그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하여 예언을 널리 유포시켰다. 상당수 민중들은 예언을 토대로 지하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왕조의 전복을 노렸다.

내가 보기에, 조선후기의 민중은 예언서의 창작에도 힘을 쏟았다. 민중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기암의 예언서를 윤색하였다. 그것은 집단창작이라 불러도 좋을 수준이었다. 18세기 후반에는 '평민지식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 및 함경도 출신의 평민지식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유교 지식은 물론, 풍수지리와 점술 및 의학에도 능통했다. 본래 그들은 정치 참여를 원했지만 기득권층의 차별과 방해에 부딪치자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에 매달렸던 것이다.

19세기말이 되자 각지의 평민지식인들은

동학(東學)이라는 신종교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동학을 통해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려 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이런 분위기를 웅변한다.

역사 속의 민중은 사회적 불의에 저항할 줄 알았고, 자신들의 기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기도 하였다. 천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한국예언문화의 특질이 거기 있다. 공자가 말했듯이, 정치란 백성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다. 민중의 불안과 그들의 갈망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국가나 사회도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불안요소도 상당히 많다. '소셜 미디어'에는 현대의 사회적 병폐를 질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일렁인다. 물론 편향된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까지도 송충이 털구듯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와 조선의 지배층이 '정감록'에 담긴 민중의 고통과 목마름을 똑바로 이해했다더라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 아닌가.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언제나 똑같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하늘의 큰 뜻이 담겨 있다.

의료칼럼

황반변성 원인과 치료



나성진
밝은안과21병원 원장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망막의 중심을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반을 통해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세포가 손상을 받아 시력이 저하되거나 시야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부위가 생긴다. 이를 황반변성이라고 말한다. 나이 이외에도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이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부어이나 욕실의 타일, 건물이 물결치듯 굽어 보이는 변시증을 경험하게 된다. 더 진행하면 보려는 중

심의 일부가 까맣게 보이지 않거나 글자 공백이 생기거나 야에 중심이 보이지 않게 된다.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 발생한 경우 정상인 반대쪽 눈 덕분에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암살력저자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이 있다. 암살력저자검사는 자가진단법 중 가장 유용하고, 간단한 검사다. 밝은 빛 아래, 약 15cm정도의 거리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그림을 보되 중심에 있는 점에 초점을 고정시킨다. 선들이 끈게 보이는 지, 작은 네모간들이 모두 같은 크기로 보이는 지, 비어있거나 뒤물리거나 희미한 부분이 있는 지, 선이 물결모양으로 굽어쳐 보이지 않는 지 관찰한다.

이후에, 반대편 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검사를 시행해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안과전문의와 상담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망막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공을 약으로 확대시킨 후 정밀망막검사를 한다. 이후 빛간섭단층촬영과 형광안저촬영을 통해 더 정밀하게 살피기 위한 검사들도 시행하게 된다. 빛간섭단층촬영은 황

반부의 단면을 관찰함으로써, 황반하의 출혈, 부종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형광조영제를 정맥주사한 뒤에 망막 혈관을 순환하는 상황을 관찰하는 검사이고 안저의 미세한 변화, 혈류의 지연이나 이상, 망막 혈관의 이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황반변성의 치료 목적은 시력 저하의 속도를 늦추고 병변을 안정시켜서 더 이상의 시력저하를 막는 것이다. 치료를 하여도 이미 잃어버린 시력을 모두 회복할 수는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해야 이후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황반변성의 치료에는 항체주사와 광역화 치료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는 눈 속에 출혈 위험이 있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의 항체를 눈 속에 주사하여 신생혈관 생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시행되며 5분이면 시술이 끝나므로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사를 통해 황반변성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사가

가 필요하다.

광역화치료는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특수약물을 정맥주사하여, 이 약물이 눈의 망막에 도달하면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에 모이게 된다. 이 때 레이저광선을 신생혈관부위에 조사해 신생혈관을 없애므로써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특수약물을 이용하여 건강한 망막세포를 보호하면서 신생혈관을 없애 시력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황반변성의 진행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양요법도 병행되고 있다. 비타민 B6, B9, B12, C,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비타민이나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아연, 구리 등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항산화비타민이 많은 녹황색채소, 루테인이 많이 포함된 케일, 시금치, 달걀 노른자, 오메가 3가 많이 있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끊어야 한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외활동이나 운동 시 눈에 강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고열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이를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고

저출산 문제, 노·사·정과 시민단체 함께 풀어라



이형하
광주여대 교수·인구협회 홍보지문위원

대한민국이 10년 넘게 초(超)저출산의 멍에 걸려 있다. 2013년 합계 출산율(이하 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해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반짝했던 출산율이 다시 곤두박질을 쳤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았던 2005년 이후 정부는 1차 저출산 대책(2006~2010년)에 42조원, 2차 대책(2011~2015년)에 76조원을 들여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 201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2003년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명 이하)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13년 내리 1.3명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초저출산의 지속현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 등의 출산 외적인 요소도 고려해야겠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출산과 양육의 심각성에 대해 시간적인 관점, 공간적인 관점, 재정적인 관점 등을 고려한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산은 대단한 시간소모적일 수 있다. 임신기의 활동제한과 생산성의 저하, 육아기의 아동돌봄 기간의 노동경력 단절, 복직 후 승진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둘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산이후 양육과 정에서 그 아이의 생활세계에 맞는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대도시에서 방 한칸을 더 늘리는 전세비가 최소 몇천만원의 필요함을 감안하면 결코 무모한 출산 도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대비 이익

실현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153개 학사 학위 중 46개는 등록금을 20년물 국채에 넣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률을 보였고, 18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20년물 국채수익률은 연평균 3.4%다. 사교육비에 허리띠는 한국에서는 최대 투자-최소이익의 실현이라는 역설이 머지 않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초저출산의 늪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이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젠 사회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노·사·정·시의 4자 연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가능한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 육구를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하자. 그들의 요구사항이 현실화를 동반한 장려수당 정도의 정책지원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보자.

또한 사용자인 기업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업문화 조성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여성의 출산휴가의 실질적인 보장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엄마의 집중 노동시간에 아빠가 엄마의 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의 탄력적 아버지 육아나눔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역할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로 정책지원은 좀처럼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당성 지원보다는 항구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이 덜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각종 연금의 적극적인 활용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몫이 중요하다. 영국의 시민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아버지들을 위한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즉, 초보 아버지들에게 가져가 가는 법, 분류 타는 법 등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적,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결과 2013년에는 출산율 1.9명을 기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을 부부가 편의대로 나눠쓰는 정책(flexible parental leave)으로 전환되도록 시민사회분위 조성고 입법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社說

여객선 침몰 참사, 생존자 구출 금선무다

수하여행객에 나선 고교생 등 459명이 탄 여객선이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안전 단원과 2학년 정차용 학생과 선사 여직원 박지영(27)씨, 남생 등 5명이 숨지고 164명이 구조됐으며 29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사고 발생 11여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기 못해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던 사고의 인과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관매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6천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2시간20분 만에 완전 침몰했다. 여객선에는 3박4일 일정의 수하여행객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5명, 일반 승객, 승무원 등 모두 459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굉' 소리가 나더니 배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라 여객선이 앞초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아직 확실한 사고 원인은 규명

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번 참사도 인재(人災)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 승객들은 "배 안이 물에 잠기는 데도 안내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선실 3층 아래에 있었던 승객들 대부분이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전해 선장 등 관계자들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짐작케 한다.

또 사고 직전 여객선을 목격한 어민은 "1시간 이상 배가 떠있다가 그 후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해 그 시간 왜 긴급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어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안전불감증을 탓할 수밖에 없다.

재난 위기관리체제도 심각한 문제다. 사고 직후 실종자 집계 오류는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경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사고 지점의 앞초지대 여부를 놓고 관계기관마다 다른 발표를 해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무엇보다 생존자 구출과 실종자를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진국형 참사는 안 된다.

학교 조명등 교체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광주시교육청이 15억 원대 LED 감성조명등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과 업체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특수학교 2개교와 일반학교 178개교 내 특수학급의 노후 조명기구 2880개를 LED 감성조명등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15억7000여만 원어치의 물량을 몰아줬다. 그레놓고 '조달우수 제품'으로 제한하다보니 특정업체 제품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역 LED업체들은 감성조명 생 산 업체가 10여 곳에 달하는데 굳이 조달우수제품으로 한정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또한 실적이 미미한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성조명등이 장애학생들의 충동적인 행동 제어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체 이후 교실이 더 어두워졌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감성조명을 업체의 말만 믿고 거액의 현금을 들여 대규모로 도입한 것이다. 몇 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만 해 본 뒤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해도 충분한 일이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층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때는 요즘처럼 복사꽃이 한창 피어나던 시절, 장소는 잠비(眠飛)의 집 뒤뜰인 한낱한시에 죽기로 맹세한다. 나관중의 '삼국지'는 그렇게 도원결의(桃園結義)로 시작된다. 세 사람이 의형제가 된 것이다.

의(義)를 위해 동쳤으니 당연히 의형제(義兄弟)다. 하지만 '의(義)라는 한 자에는 '옳다'라는 뜻 외에 '가짜'라는 의미도 있다.(친형제가 아닌 '가짜 형제'라는 얘기가) 고무로 만든 가짜 다리(足)를 의족(義足),

하지만 계모라 하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공유팔자' '장화홍련전' 등 전설(前室) 자식을 확대하는, 그 흔하디흔한 계모설화나 동화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계모는 '심정전'에 나오는 백아어멈처럼 대부분 악녀나 추녀로 묘사된다.

신데렐라(Cinderella)의 어원을 혹시 아시는지? 그녀의 원래 이름은 엘라(Ella)였는데 나중에 재(灰)를 뜻하는 신더(cinder)가 앞머리에 붙었다. 계모 때문에 늘 부엌데기로 일하다 보니 '얼굴에 재가 달라붙은 엘라'라는 뜻으로 신데렐라

의붓어미

의부(義父)나 의모(義母)도 마찬가지다. 심하게 말하면 '짜똥 아버지'요 '짜똥 어머니'다. 의붓딸이나 의붓어미에서의 '의붓' 역시 한자어인 의부(義父)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사전에서는 고유어로 처리하고 있다.

의붓어미를 다른 말로 계모라 한다. 계모(繼母)에서 '계(繼)'는 '계속 이어 나간다'는 뜻을 가진 한자다. 그러나 이 말에는 새엄마가 친엄마에 이어서 의붓자식을 잘 돌본다는 뜻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모는 의붓어미보다는 좀 더 '착한' 낱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Cinder + Ella)가 된 것이다.

벗꽃이 한순간 흩날리더니 진달래·철쭉이 다투어 피어난다. 나도 피고 너도 피며 온 산이 불타오르는 이때, 일단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담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격분하며 치를 떨고 있다.

그렇지만 지상의 모든 의붓어미가 어찌 다 나쁘겠는가. 통계로 보더라도 아동 학대는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데... 그래도 어찌다 '계모'를 잘 돌본다는 뜻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에게 햇살 같은 은총을! /이홍재 논설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문 화 시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